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본 對中國 인식의 변화

The Change of Understanding of China in Old Maps made in the Joseon Dynasty

오상학(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ohsanghak@cheju.ac.kr)

고지도는 과거에 존재했던 세계와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각자료이다. 고지도에는 당시의 지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예술성 등이 반영되어 있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과 관념, 종교적 믿음 등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또한 고지도는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 속에서 탄생되며 지역간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선전기의 지도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중국이 그려진 현존하는 조선전기의 지도는 1402년의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와 16세기의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가 대표적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원대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제작했기 때문에 원대의 지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주요 지역은 명대의 지명으로 표기하였고, 그려진 범위도 당시 개방적 대외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중국의 여지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주자성리학이 사회운영의 원리로 정착되면서 중국=중화, 조선=소중화라는 階序적 인식이 확고해졌다. 이러한 인식은 지도에도 반영되어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에서는 중국과 조선만이 의미있는 지역으로 부각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선택적으로 그려지거나 축소되었다.

둘째, 명의 뒤를 이어 만주족인 청이 중원을 장악한 후로는 조선이 중화라는 「조선중화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을 그린 지도에서도 청나라의 지명 대신에 명나라의 지명이 계속 표기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중국의 모습은 조선 전기의 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한 지도들과 큰 차이는 없다.

셋째, 18세기 이후 중국을 통해 서양의 지리지식이 도입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북경에 갔던 사신들의 청나라 문물에 대한 경험은 청나라를 오랑캐라는 인식을 넘어 하나의 실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서양선교사들이 가져온 서양의 과학문명은 중국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따라서 지도에서도 도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이 점차 축소되었고 서양을 비롯한 다른 지역이 서서히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